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하연서	다섯번째여자	살림출판사	현닝 만젤	"진실은 언제나 그늘 속에 숨어 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실재를 믿지 않는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남부지부	인스빌작은도서관	이성희	무서운 이야기	창비	이갑규	무서운 그림책이라면 주저없이 추천하는 책! 정말 무섭도록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가원시니어도서관	윤영숙	에르고	(주)비룡소	알렉시스 디렌	자기이해, 알속에서 눈을 반짝 은 에르고는 발가락을 감지락, 날개를 피덕, 부리로 꼭꼭 쪼아보다가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중심성을 깬다.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가운데 신체활동인줄 알았던 먹을 발견하고 먹밖에 또다른 세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용기내어 먹물개고 나와 자기실현이라 할 수 있는 진짜 에르고 세상을 펼쳐 냅니다. 세상밖을 뛰쳐나와 나와 먹물은 형제나 누나를 보호해준 어머니가 반겨줍니다. 결론-어미새가 에르고가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듯 도서관의 역할이 어미새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숲속도서관	석보경	배고픈 고양이	계수나무	김유미 글 그림	고양이와 생쥐는 서로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함께 지내요 그림체가 눈에 확 띄어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실형하는도서관별빛	김정희	두 점 이야기	사계절	요안나 올레흐 글,에드가드 그림	이 책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고정된 성 역할의 문제를 다양한 점들로 보여준다. 그 점들 위에 100개의 구멍이 뚫린 타공판을 대는 순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작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예다움 작은도서관	백정희	엄쳐서 바라보면	록요일	아슬 로페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를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바람이 나무 스치는 소리는 잊은 지 오래였어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떨어지기 직전의 빗방울 소리도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서울서부지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엄연희	내 그림자는 핑크	다산어린이	스캇 스튜어트	자녀가 지난 성장제성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친구를 앞으로 당당히 이끄는 아빠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관을 돌아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이기도 하지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서울서부지부	숲속SH작은도서관	정은선	연남천 풀다발	달그림	전소영	"모두에게 자마다의 계절이 있다". 계절에 따라 연남동 축제전을 산책하며 만난 풀들을 그리고 단상을 더한 그림책인데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와닿아 여러 번 을조리게 되는 말이 달라 신기하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서울서부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안해나	어느 이야기	길라복스	프란체스카 엘로르토	사랑했던 남자가 시간이 흐르며 각자 좋아하는 것만 몰두해요. 집안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쌓여 가지만, 정작 남녀는 서로를 보지 않아요. 집이 부서지고 텅 비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들(가족, 친구, 아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보듯,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예요. 결국 삶이 아름다운 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니까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건전지엄마	창비	강인숙 전인배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엄마에게 필요한 가족의이해와 다정한 충전이지 않을까?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나는 이야기입니다	소원나무	댄 아카리노	나는 영원히 살아 있을거야 나는 바로 이야기니까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작은도서관협의회(다울림작	박정자	엄마소리	길벗어린이	이순옥	치매결린 엄마를 위해 밥상을 차리며 엄마가 해주신 밥을 소리로 기억하는 딸자의 이야기라 눈물아놔습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최영진	꽃밭코알라	킨더랜드	말리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리아 책.초목가복,파랑오리와 함께..이야기가 아름다워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개인회원	이소운	인공지능은 나의 워기-쓰기	유유	김성우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르게 바뀌는 AI시대. 급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 인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책을 삼분의 일 정도 읽었는데, 저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이런것이 아닐까?"우리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이어져서 사랑의 노래를 쓰고 연주하고 함께 부르지"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흙치다	천개의 바람	윤여림	한 번 줌은 아린시절 격을 법한 이야기이며 주인공의 마음이 그림으로 재미있게 잘 나타낸 그림책이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외골와글작음도서관	구순례	무서운 이야기	창비	이갑규	"호랑이는 손식간에 아이를 따라잡았어. 아이는 벼랑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어. 그리고 용기 내어 서서히 뒤를 돌아보았어" 호랑이도 놀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ㅎㅎ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제주지부	대조곶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마음먹은 고양이	나무말미	강경호 글, 다나 그림	나처럼 마음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마음도 먹어보고 저 마음도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 봐야 해. 어려운 일일수록 망설여지는 일일수록 꼭꼭 씹어 먹어 봐야 해. 마음먹었을 때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그냥 한번 해 보는 거야.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남부지부	고산센트레빌작은도서관	장은진	불꽃	도서출판 브로콜리숲	안오일	이라고 고추처럼 사랑도 익일수록 투명해야 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정지아	금계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홍부네그림책도서관	이복임	위대한 여행	토토북	제니 베이커	갯벌의중요성과 사람들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서부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말에 구원 받는다는 것	매디치미디어	아라이 유키	<삶을 파괴하는 말들에 지치지 않기> 라는 부제를 보며 얼른 집어서 읽은 책입니다. 사회를 가득 채운 말들, 짝아 내리고, 침묵하게 하며, 편안하게도 하지 않는 말들에서 언어의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언어를 고찰하는 책입니다.					